

더불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
-
-

□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일에 이미 100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여의도에 운집하였고, 오는 12월 13~14일에는 더 많은 국민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더하여, 12.12. 담화로 촉발될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의 결집은 시위의 밀집도와 대립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의료 체계가 정상 작동하길 기대하기 어려운바, 보건의료특위는 집회에서의 의료 공백을 보충하고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 지원단 결성 및 투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 보건의료특위 의료 지원단은 서울시의사회에서 내과계, 외과계 전문의를 투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수진으로 인력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에서 12월 13일(금) 18:00~22:00 동안, 각 2명의 전문의를 배치, 12월 14일(토) 15:00~22:00 동안 5명의 전문의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진을 시간대별로 투입하여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의료특위 의료 지원단 천막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 설치될 계획이며, 의약품과 진료 물품을 충분히 구비 해둘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지난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을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의료 지원단은 처단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겨울과 정부의 날카로운 칼바람에 맞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국민과 항상 함께 호흡하며 걷겠다. 국민을 포함한 경찰의 건강과 생명도 우리 의료인이 함께 지키겠다.”고 하였고, 前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우리라서, 의사라서 할 수 있는 일로 뜻을 같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보건의료특위를 이끄는 강청희 위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 15개 보건의료 직능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특위가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으며, 100만 인파가 예상되는 탄핵집회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의사단체와 공조해서 현장 의료지원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의료계가 함께 의료대란 타개를 위한 신뢰구축을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첨부]

1.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의료 지원단 천막 사진 2매 끝.

